

## 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지원사업 우수공연 지원 심사평

- 일시 : 2014. 9. 15(월) ~ 9.16(화), 13:00~18:00
- 장소 : 대학로 예술극장 3관
- 심의위원 : 김규종, 이유리, 이지혜, 한아름, 허수현 (가나다 순)

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창작뮤지컬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시범공연 지원 심의에서 선정된 네 작품이 낭독공연 형식의 실연심사에 참가하였고, 이중 두 작품을 우수공연 제작지원 선정작으로 결정하였다.

심의를 위해 대본, 악보, 음원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시범공연 실연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였다. 작품의 예술성(40%), 공연단체의 역량(30%),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(30%)을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며, 모든 작품은 동일한 조건 하에 시범공연에 참가 하였다.

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뮤지컬 제작지원 사업인 만큼 그 첫 번째 지원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다. 특히 청소년을 관객으로 한다는 점과 더불어 기성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어 하나의 작품으로서 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거듭된 논의를 거쳐 최종 <달빛요정과 소녀>, <바람직한 청소년>을 선정하였다.

주크박스 뮤지컬의 장점을 잘 살린 <달빛요정과 소녀>는 음악과 스토리의 진정성이 조화를 이루어 기본을 잘 갖춘 작품으로 평가되었다. 대본과 음악의 밀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원곡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한 개선과 스토리 전개에 따른 새로운 창작곡을 추가하는 등 작품을 풍성하게 만드는 보완작업을 통해 우수한 레퍼토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.

적절한 주제의식과 유머가 균형감을 이룬 작품으로 청소년 작품이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<바람직한 청소년>은 강력한 캐릭터와 극적 재미가 뮤지컬 무대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었다. 락 음악으로 창작을 시도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나, 기존 연극을 뮤지컬로 창작해내는 과정에서 음악과 대본의 조화와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혀 앞으로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. 장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숙성된 음악이 도출되길 기대한다.

<북치기 박치기>와 <열아홉 소녀> 두 작품 모두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시범공연을 완성하기 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큰 발전을 보여주었지만 각각 제작의 실현가능성과 작품의 발전

가능성에 있어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제작 기간과 제반 여건이 충분치 못 하다고 판단하였다.

<북치기 박치기>는 힙합 뮤지컬의 창작을 시도했다는 점과 젊은 창작자의 패기 넘치는 도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대본의 발전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, 랩 음악만으로 구성함에 있어 음악적 한계와 무대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계획이 수반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.

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스토리와 캐릭터를 창작한 <열아홉 선물>은 찾아가는 공연과 참여형 공연을 제작함에 있어 실현 가능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, 작품의 설정과 구성이 다소 평이하고 산만하여 구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에 작품을 다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.

이번 청소년 뮤지컬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는 울림이 있는 작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.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뮤지컬 창작에 있어 창작자와 공연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제작 의지를 부탁한다.

청소년뮤지컬 제작지원 사업 우수공연 지원 심의위원 일동